

빛나가는 쌀 수급 정책에 ‘널뛰는 쌀값’

쌀 20kg당 소매가 6만 7351원·25.5%↑…최근 5년 상승·하락 반복
지난해 쌀 과잉생산 예측 26만톤 시장격리·비축미 등 쌀값 급등 초래

정부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농업 관련 국가 기관 등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하는 쌀 수급정책 방향성 예측이 매년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쌀 도매가가 1가마니(80kg) 당 22만 원을 넘어서고 소매가 역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상품·20kg) 소매가는 지난 10일 기준 평균 6만 7351원으로 전년 동기(5만 3679원) 대비 25.5% 올랐고, 평년(5만 4747원)보다도 23% 가량 비쌌다.

앞서 통계청이 조사한 쌀 산지가격 역시 지난 9월 5일 기준 한 가마니 당 22만 324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쌀 산지가격이 22만원을 돌파한 것 역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으로, 쌀 가격은 산지가 격부터 소매가까지 매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널뛰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이 국민 주식이지만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대표적인 쌀 과잉생산국이다. 하지만 쌀 수급정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예측은 매년 엇나가면서 쌀 공급량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쌀 산지가격은 2021년 가마니 당 22만원

을 돌파하는 등 급등했다가 2022년엔 하락했다. 이어 2023년에는 또 다시 상승한 뒤 2024년엔 하락했다. 올해도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상승-하락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올해 쌀 값 급등 배경에는 지난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격리 조치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쌀값이 급락하자 26만 t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했다. 하지만 당초 내놔던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측치보다 실제 생산량이 적었고, 수급 균형이 틀어졌다.

여기에 올해 이상기후에 이어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조생종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산지 쌀 유통업체들의 벼 확보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실제 지난달 중순 기준 전남에서는 기존보다 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쌀 가격을 결정하는 수급정책의 기초 데이터도 오차가 컸다. 지난해 전국 쌀 예상 수요량은 352만 9000 t이었지만, 쌀 생산량은 358만 5000 t이었다. 정부가 초과된 물량인 5만 6000 t 가량을 매입하면 수급 균형이 맞춰지는 셈이지만, 정부는 매년 사들이는 정부 비축미 물량뿐만 아니라 26만 2000 t의 쌀을 추가 매입해 시장격리했다.

이는 쌀 생산량·수요량 예측 당시 12만 8000 t

의 쌀이 남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5만 6000 t이 남는 등 실제 수지와 예측 수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로 분석된다.

각 조사기관의 표본 대표성 등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과거 통계청은 매년 작물재배면적을 조사하고,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연 3100여개의 표본필지 추출, 표본필지 당 2곳의 현지 방문조사, 표본 채취, 탈곡, 재현 등의 과정을 통해 쌀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 표본이 너무 적은 데다, 산지의 재배환경 변화 등에 대한 반영도 부족해 지난해의 경우 실제 농민이 채감하는 생산량보다 20%가량 오차가 발생했다.

조사기관들 간 불필요한 중복 조사도 지적받고 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2일 ‘2025년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지난달 25일 ‘농업관측 쌀 10월호’를 발표했다. 쌀 생산량 관련 정보를 작성한 기관은 다르지만 KREI의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만큼 쌀 예상 생산량이 355만~360만 t으로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봉식 영암군 쌀 생산자협회장은 “최근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조사기관에 연락해 매년 예측이 엇나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산 및 인력 부족의 한계 등으로 더욱 정밀한 생산량·소비량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기초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수급대책 결정까지 전 단계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5월 해남군 북평면의 한 마을밭에서 농민들이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마늘·양파·보리도 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

농식품부, 3개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마늘과 양파,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 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의 평균 수입보다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진 경우, 수입 감소분 전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늘었고, 작황이 부진해지며 수급불안 문제가 커지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별로 마늘은 10월 13일부터, 양파와 보리는 20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에 수확량 감소에 대해 서만 보상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상품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해당 상품을 전국으로 확대해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50%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 의무적으로 경작신고 및 자조금 납부를 해야 하는 품목들은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 ‘참주가 생막걸리’ 이달의 전남 전통주 선정

10월 전남의 전통주로 나주 ‘다도참주가’에서 생산하는 ‘참주가 생막걸리’ (탁주·5.5%)가 선정됐다.

전남도가 10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선정한 참주가 생막걸리는 담백하고 깔끔하며 향기로운 술맛이 특징으로, 수제입국을 고온발효시켜 직접 찐 오동나무 틀에 국을 띄워서 5미 (단맛·쓴맛·신맛·짠맛·매운맛)가 살아있다.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로 숙성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탄산감을 즐길 수 있다.

1~15일 정도는 낮은 알코올 도수의 달콤한 맛을, 16~30일 정도는 높은 도수의 숙성된 쌀의 풍

미를 느낄 수 있다.

나주 ‘다도참주가’는 지난1986년부터 3대째 이어져온 양조장으로, 참주가 생막걸리 외에 한라봉과 설향 딸기를 활용한 과일주인 ‘라봉’과 ‘딸링’, 국내산 약재와 솔잎을 넣어 발효한 ‘참주가 솔막걸리’ 등을 생산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참주가 생막걸리는 나주 쌀을 사용해 단맛은 적고 쌀 본연의 고소한 풍미 가득한 막걸리”라며 “전남 전통주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판로 다각화를 통해 전통주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긴 연휴 끝 과일 값 급등…이달 중 하락 전망

전년 동월비 배 28.3% 상승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배·포도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전년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길었던 연휴로 과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 물량이 부족한 탓으로, 이달 하순께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신고·상품)는 지난 10일 기준 15kg 당 6만 5298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년 동월 평균치(5만 888원) 대비 28.3% 높고, 평년 동월(4만 7520원)보다는 37.4% 비싼 수준이다.

같은 기간 포도류의 상승폭도 컸다. 샤인머스켓(상품)은 2kg 기준 9138원으로, 전년 동월 평균치(7971원)보다 14.6% 높았고, 국내 포도 중 최대 생산 품종인 ‘캠벨엘리(상품)’도 3kg 기준 1만 8614원으로 59.1% 높은 수준에 거래됐다.

유통업체에서는 최대 7일에 달했던 이번 추석 연휴를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휴 막바지에 시장 반입량이 감소한 반면, 수요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달 하순께엔 사과를 비롯한 주요 과일 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역시 ‘농업관측 과일 10월호’를 통해 과일값이 대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대표적인 과일 품목인 사과는 이미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사과(후지·10kg) 가격은 지난 10일 가락시장 기준 4만 7988원으로 전년 10월 평균치(5만 8640원)보다 18.2% 낮았다.

사과는 이달 예상되는 출하량이 1년 전보다 1.2% 감소할 전망이지만, 향후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KREI 관계자는 “보통 10월 중에 출하될 사과 품종이 올해는 추석 성수기에 발맞춰 조기 출하된 데다, 추석 이후 과일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10월 배와 샤인머스켓 포도 출하량도 전년 대비 각각 4.3%, 5.6% 증가할 전망이다 만큼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aT, 미국 식품안전 규제 대응 FSVP 전문가교육 참가자 모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오는 19일까지 ‘해외 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전문가(QI)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FSVP는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공급업체 검증 분야 핵심 제도로,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자격 담당자는 전문 교육을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담당자가 소속된 회사의 FSVP 서류를 직접 작성·서명할 수 있게 되며, 실무적으로도 수출자가 대부분의 공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수입자가 법적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수출업체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서울에서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교육은 오는 11월 3~4일, 2차는 11월 5~6일에 열린다.

aT는 국내 수출업체들을 위해 교육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